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다리 역할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속 수어통역사의 노동환경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의 여주인공  
홍희주는 어머니의 강요로 말을 잃은 함묵증으로  
위장하고 수어통역사로 사는 인물이다.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과 청인 사이의 언어  
소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리 역할도  
한다. 드라마를 통해 대중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인데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수어통역사는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글 편집실

▶ ■ || 02:15 / 25:02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메인 포스터

### #01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언어 전달자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수어통역사인 희주와 대  
통령실 대변인 백사언은 타인의 말을 대신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소통하지 못했다. 그  
러던 어느 날, 희주는 자신을 납치한 괴한의 휴대전화를 빼  
앗아 탈출한 후, 그 휴대전화로 목소리를 변조하여 매일 밤  
사언과 통화를 하게 된다. 정체를 숨긴 채 대화를 이어가던  
중, 희주는 사언이 근무하는 청와대의 수어통역사 채용 면  
접에 참여하게 된다.

드라마 속 희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어통역사라는 직  
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수어  
통역사는 어떤 일을 할까?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어(수화언어)와  
구어(말)를 번역하는 직업이다. 수어 통역이 필요한 현장에  
서 실시간으로 수어와 구어를 번역하는 현장 통역과 전화  
통화나 화상회의에서 실시간 통역을 하는 영상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수어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  
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빠  
르게 통역할 수 있는 높은 집중력과 순발력도 필요하다. 또  
한,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적절히  
전달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02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하는 직업

수어통역사는 방송과 영상 외에도 법정, 병원,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교육,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의사소통을 돕는 개인 통역자로도 일한다.

국립국어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중증 청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들이 수어통역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의료기관으로, 그 비율이 83%로 가장 높았다. 의료통역은 일반 통역에 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전문 교육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법정이나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문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어통역사는 긴 시간 동안 통역을 하며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시달린다.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나 중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육체적인 피로와 심리적 압박도 크다. 또한, 팀 단위로 협업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인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직무의 난이도나 근무

시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도 많다. 더불어, 수어통역사의 권리나 근로 환경에 대한 법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2월, 한국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수어통역센터는 197개소에 달하지만, 각 통역센터마다 수어통역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수어통역사 1명당 담당해야 할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전국 평균 428.5명에 달해,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수어통역사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정규직이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평균 재직 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

수어통역사는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이므로, 적정 근무 시간과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수어통역사의 직업 만족도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과 관련이 있어, 적정 근로 시간, 합리적인 보수, 교육 지원, 법적 보호 등 노동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복수응답 / 단위:%)

